

'잔고증명 위조' 尹 장모, 법정 구속

항소심도 징역 1년... 재판부 "자신의 이익 위해 법·제도, 사람 수단화했는지 우려"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6)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1일 의정부지법 형사8부(부장 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1일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8부(부장 판사 이성균)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까지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받았다"며 "재판 위협성이 있고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문서 위조와 위조 사문서 행사와 관련해 재판부는 "문서 위조의 횡수가 4회에 이르며 규모가 막대하고, 그 중 1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서도 도춘동 땅 매수 과정을 봤을 때 정매 처의를 위해 명의신탁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최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회사와 개인이 이용되고 소외되는 결로 볼 수 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과 제도와 사람이 수단화된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항소심에까지 부인하고 책임을 동업자에게 돌리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병행 경위,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양형 조건을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도착한 최씨는 '위조된 잔고증명서가 실제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 거 몰랐다', '도춘동 땅 처분으로 산 혐의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 밖으로 들어갔다.

법정 밖에서는 일부 유투버들이 최씨가 탄 차량이 들어오자 최씨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치기도 했다.

결판 이후 최씨는 재판부를 향해 "무슨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말씀해달라"고 되물었고 법정 구속 사실을 알게 되자 "억울하다"며 오열하더니 법정 바다에 드러누웠다.

최씨는 "아리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걸 정말 안된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누워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장했다.

앞서 최종 변론 기일에서 검찰은 최씨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고 최씨 측 변호인은 "안 씨의 증언 등을 보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렸다고 볼 수 없다"며 "위조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문서 행사는 일부는 다 투고 있다. 명의 신탁은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조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처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와 행사 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씨의 주장이 엇갈려 재판 재판을 공방이 벌어졌다.

안씨는 지난 1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뉴스



故채수근 상병 빈소 찾은 김관영 전북지사 (故) 채수근 상병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를 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21일 경복 포항 해병대 1사단에 치러진 고(故) 채수근 상병의 빈소를 찾아 깊은 애도를 전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도, 국가예산 확보 중앙부처 설득 총력

임상규 행정부지사, 국토부·농식품부·기재부 찾아 전북 주요사업 반영 설득

전라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 최대 반영을 위해 전방위 부처 설득 활동을 펼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1일 국토부·농식품부·기재부를 차례로 방문해 도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

먼저 임 부지사는 국토부를 찾아 미래형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의 선제적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 통과 전략을 논의하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는 지난 21일 국토부·농식품부·기재부를 차례로 방문해 도 주요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섰다.

이어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과 기재부 농림해양예산과장에게는 농생생산업 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을 설득하며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첨단 시설원예의 농업기반 구축을 통한 청년농의 스마트팜 창업 기회 제공과 스마트팜 전후방산업 육성을 위해 '재민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사업'의 기반 조성비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국가식품롤러스터가 미래성장동력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전초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한국식품문화 확산과 미래 식품산업 선점을 위한 '식품문화복합 혁신센터 구축'과 대체 단백질 소재 기반 구축 사업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아울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반영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임 부지사는 기재부를 찾아 문화·체육·관광분야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주요 핵심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대통령 지역공약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는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의 내년도 예산 반영과, 전북을 한류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K-문화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안 반영을 건의했으며, 후백제 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비 기반 마련을 위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반영도 요청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정부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를 역제로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다"며, "국가 분담 기능, 미래성장동력 등 4대 중점 투자 대상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해 예산확보 방지 및 추가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실국정을 중심으로 매주 각 부처와 기재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 설득과 예산안 반영을 건의하고 있으며, 지역 국회의원과도 소통을 이어가며 공조 대응하고 있다.

또한 도 지휘부도 기재부 심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미온적 사업과 대규모 현안 사업 등 주요 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재훈 기자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일대 논공과 시설하우스 등 침수 현장을 방문, 피해 농민과 농어촌공사 및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농작을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농경지 침수 피해 현장 방문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전주1)이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복구 대책을 모색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지난 21일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 일대 논공과 시설하우스 등 침수 현장을 방문, 피해 농민과 농어촌공사 및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과 농작물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전주시 남정동 지역은 집중호우 기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마산천의 수위상승으로 인근 지역 논공 20ha와 시설하우스 등 80ha의 농경지 및 농가계 침수 피해를 입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북은 정부의 쌀 감산 정책으로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한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로 논공 재배 면적의 40% 가까이가 침수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논공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거절로 피해 보상금이 막혔고 논공 대체 작물까지 없는 만큼 시름에 잠긴 농가를 위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겠다"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펌프 실패 등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도의회 행사위,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점검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지난 21일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부지를 방문해 대회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영지 내 현장을 점검하는 등 활발한 현지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부안군 새만금 일원에서 개최되는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계속되는 호우로 인한 잼버리 영지 내 배수

상황을 살펴보고, 폭염 해충, 식중독, 인과 관리 등 개최 준비 상황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잼버리 병원과 대회 운영본부로 활용될 글로벌 청소년리더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신속한 의사서비스 제공 응급환자의 중증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송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 '해외발 과소포 사태'에 '안보라인 대응 부재 심각'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국제 우편물 과소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손 놓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해외발 우편물 포비아에 대한 안보라인 대응 부재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 국제 우편물발 정체발명의 택배물이 배송됐고, 이를 열어본 시민들이 효음곡과 마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가 된 우편물은 대부분 대만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정읍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운)는 지난 21일 제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고경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의 표절을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최재기 의원은 서남권 추모 공원 및 서남권 광역 생활지원 회수센터의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황해숙 의원은 그린 바이오산업의 육성방안을 주장했고, 이상길 의원은 호우 대비·대응 관련 예비비의 적극적인 확대 집행을 촉구했다.

안건 심의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으로 고경환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용역사업 심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으로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안' 등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가결했다.

이어 이도형 의원의 대표 발의로 '대일행정기 강제 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 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해야 하는가'

전북선거방송토론위 '청소년 열린 토론회' 성료

고등-전라고 '헤게모니' 중등-전북중 'GOOKIE' 우승

전라북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22일 개최한 '2023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회'에서 고등부 '헤게모니' (전라고)과 중등부 'GOOKIE' 팀(전북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청소년의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성숙한 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예산을 통과한 중등부 4팀과 고등부 4팀이 '선거운동 가능 연령 16세로 하향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린 찬반 토론을 펼쳤다.

참여 학생들은 논제에 대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풀어내고 활발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등 진지한 토론을 펼쳤다.



지난 22일 열린 전북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북 청소년 열린 토론회'.

그 결과 고등부에서 전라고 헤게모니팀(이기범, 이성경)이 금상, 군산기계고 최신용의수제지들팀(김상, 유지훈)이 은상 원광중 모도리팀(박지우, 이민규)과 영선고 중립기어팀(최민주, 김민경)이 동상을 수상했다.

중등부에서는 전북중 GOOKIE팀(국아식, 구주원)이 금상, 김제중앙중 풀밍이팀(서태영, 백건영)이 은상, 원광여중 라온제나팀(송윤정, 박규민)과 화산중 L.P.G.팀(이정현, 기어팀)이 동상을 수상했다. /김재훈 기자